

■ (언론 동향) 2021.10.29. "농민신문" 사설

○ [사설] 비료원료값 급등...농가 경영부담 우려된다

비료 원료값이 치솟고 있다. 10월 현재 염화칼륨·인산염·암모니아 등 주요 무기질비료 원료값은 지난해말에 견줘 1.7~2.5배 올랐다. 이처럼 비료 원료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요가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물류대란으로 화석연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더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요소 가격은 지난해 1t당 274달러에서 올 10월초 659달러로 치솟았다. 석탄·천연가스·유황 등 원료값이 급등한 가운데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배출 문제 등으로 공장 가동을 제한하는 한편 수출을 규제하면서 내수용 비축에 나선 것이 가격을 끌어올린 주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내년 2월 무렵이면 미국산 요소는 1t에 720달러, 브라질산은 749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화칼륨은 상승폭이 더 크다. 지난해 1t당 235달러였던 염화칼륨값은 올 7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현재 590달러 수준으로 약 2.5배 오른 상태다. 수출국인 캐나다에서 광산 침수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서방 국가들의 수출 규제에 벨라루스의 공급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암모니아는 지난해말보다 2.1배, 인산이암모늄(DAP)은 1.7배 올랐다.

비료업계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하기 어려워 수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공장 가동이 힘들어 올 8월 비료값 인상에 이어 또다시 가격 조정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비료 공급문제로 영농에 차질을 빚게 되면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비료업계는 힘을 모아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